

1원의 기적 운동 펼치는 유수륜 LP가스공업협회장

사랑 실은 LP가스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프레지던트 잡지 인터뷰 내용—

1원으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한 기업인이 있다. 2월1일부터 가스나 유류 1리터가 팔릴 때마다 1원을 적립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행복나눔충전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LP가스공업협회장이 그 주인공. 그는 강원도 춘천·홍천·횡성 등에서 5개의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개 계열사를 두고 있는 중견기업인이다.

“한국LPG가스공업협회 1,800여 회원들이 1리터에 1원을 적립하면 연간 50억원이라는 큰 돈이 생깁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이나 문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모금 캠페인입니다. 지난해 LPG가스공업협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는데, 올해 먼저 제가 스타트를 한 것뿐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회원들은 물론 1300여 회원사들의 동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푼 보기에 1원은 작은 돈이지만 업계의 입장에서 순이익의 5-10%에 해당되는 이 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이를 무릅쓰고 행복나눔총선의 깃발을 올린 사연은 무엇일까? 평소 유 회장의 인생 화두처럼 ‘배려’를 통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일환이다. 경영철학도 ‘다함께 다. 기업이라기보다 NGO단체 구호 같다는 느낌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한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느낌의 미학을 실천하는 경영자로 보였다.

그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경계에 서라’는 말을 자주 건넨다. 주류에만 서 있다 보면 비주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없듯이, 흑과 백의 경계에서 좌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현장

에서만 활동하다보면 회사의 관리지나 경영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아집에 빠져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작은 배려와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다. 행복나눔캠페인 역시 첫술에 배부를 것이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 도·농간 지역 간 수익구조의 양극화가 심한 현실에서 일방통행이 아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황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가겠다는 그의 행보다.

소외계층 돕는 것은 사회적 의무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만난 그는 문명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좀 더 사색의 여유를 주문한다. 도시계획관계자들을 만나면 춘천에서는 가능한 건물도 5층 이하로 지어야 한다고... 지난해 완공한 그의 사무실도 4층이다. 하늘이 준 호수와 산 등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을 살아야 건강한 사회의 원천이라는 그의 철학이다. 지방의 LPG업체들의 경우 한 달에 3-4만원의 회비마저 부담스러운 현실에 웬 “사회공헌 캠페인이나”고 물었다.

“LPG의 주 소비층은 택시기사와 650만 가구에 해당하는 시골이나 산동네에 사는 소외계층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객이지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보듬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올해 LPG가스협회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로 ‘착한기업’을 향한 사회공헌활동을 선정했다.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는 작은 믿음에서 출발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수입사들에게 “매칭그랜트 제도 도입을 통한 사회공헌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LPG업계에서 기부하는 금액만큼 수입사들도 이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 회장은 2006년 전직 회장의 잔여임기 1년6개월에다 이달 말 3년의 임기를 마친다. 하지만 차기 회장에 이번이 없는 한 또 다시 재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그는 전국 가스판매점 및 충전소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형 저장탱크 보급과 노후 경유차의 개선, 가스 배송센터 도입 등 LPG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제15회 가스안전축진대회에서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불합리한 세율 해소해야

LPG업계의 가장 큰 애로는 불합리한 세율정책. 도시가스요금은 물가인상을 우려해 정부가 철저히 규제하는 대신 연간 3,000억원의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LPG요금은 업계의 자율에 맡긴 것이 문제다.

“도시가스로 불리는 LNG의 가격은 LPG의 절반수준입니다. 하지만 LPG가격에는 골프채에도 붙지 않은 개별소비세를 적용 연간 약700억원의 세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LPG업계와 저소득층의 부담이지요”

즉 중산층은 정부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오히려 달동네에 사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가정용 프로판 가스에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다. 도시가스관이 들어가기 힘든 도심의 산동네나 시골의 저소득층의 650만 가구가 LPG

의 주요 소비층이며 나머지 1400여만 가구가 LNG를 사용하고 있다. 당초부터 경쟁이 불가능한 왜곡된 가스공급체계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LP가스 협회가 풀어가야 할 가장 큰 숙제다. 가격경쟁력 저하는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마진 때문이라는 정부 측의 설명은 다소 공색해 보인다. 여기에 현장과 괴리된 각종 규제 전봇대도 LPG업계의 애로사항이다. 지하에 매몰된 가스탱크의 굴착검사나 비상발전기설치 등도 첨단시대에 맞는 시스템으로 바뀌 비용절감을 통한 업계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다. 40년 역사를 가진 LPG업계는 지하에 매몰된 가스탱크를 아직도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한다. 현재 이런 비용만 무려 3,000여 만원이 든다. 또한 비상발전기는 가스 충전소를 찾은 고객이 자칫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장비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전기품질이 정전으로 인해 충전이나 주유 등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비상발전기 설비 구축여부는 협회 주도로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전기안전공사의 정기점검이 있기 때문에 이중 규제라는 설명이다.

LPG브랜드화로 안전책임 강화

LPG업계는 EI과 SK가스 등 수입사들에게 사회공헌 활동은 물론 LP가스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장한다.

“녹색성장 시대, LPG의 연비특성, 친환경성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정유업계는 지난해 클린디젤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도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지요. 클린 디젤이 신제품이 아니라 기존의 제품에서 황 성분을 조금 제거한 것이거든요. 국내 가스 수입사들이 충전사업자보다 앞서서 홍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랜드화는 고객에 대한 또 다른 사회책임이라는 유 회장.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통에 각자의 회사로고가 붙어 있을 때 브랜드 관리를 위해 홍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게 되는 장점 때문이다. 이어서 그는 충전업계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얘기도 잊지 않았다. 부탄충전소가 큰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서울과 지방이 처한 현실이 다르다는 것. 수도권, 대도시 등 희소성이 있는 지역은 나름대로 괜찮은 사업이지만 지방은 월 100톤 가량의 판매에 그치는 곳이 허다하다고 전했다. 때문에 수도권의 충전소들은 지방충전소들의 몫도 어느 정도 거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He is

인성 없는 성공은 모래성과 같다

나눔과 배려는 영혼을 이룸답게 하는 비타민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 에너지사업을 위해 40여년 외길을 달려온 유수륜 회장. 2008년에는 골재채취 등 건자재업에도 진출했다. 강원도 횡성출신인 그는 평생, 세상 사람들과 나눔과 소통을 위한 자기희생을 당연하듯 살아오다시피 했다. 그의 장학사업은 24년 전인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내에서 학구열이 높고 좋은 성적을 내는 학생들이 많지만 등록금이 없어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울대에 합격한 한 학생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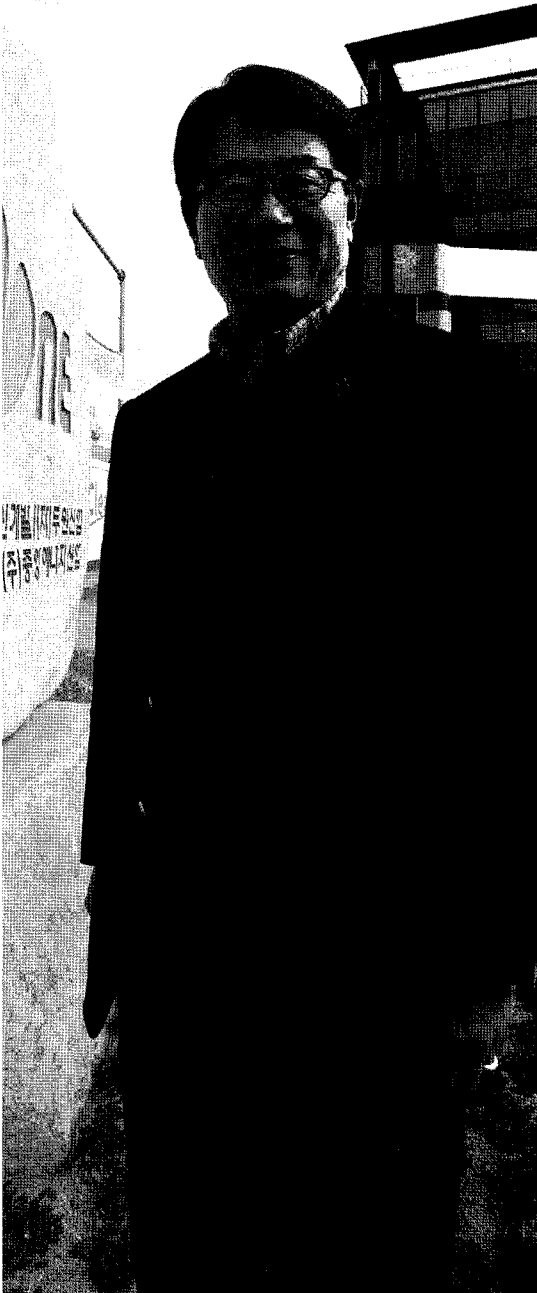
이렇게 시작된 그의 작은 출발은 20여 년의 세월을 거쳐 노인요양 및 장애인 시설인 사회복지사업과 산학협력 장학사업(대학생), 지역 사회 꿈나무 장학사업(중고생), 독거노인 수해지역 가스지원 사업 등으로 확대됐다. 한림대, 강원대, 춘천교대, 한국폴리텍대, 상지대 등이 수혜 대상자들이다. 이들에게만 연간 3,000여 만원 정도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의 자선사업가운데 유독 교육 사업이 눈길을 끈다.

“정치인이든 법조인이든 비즈니스맨이든 인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리더에게는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지요. 어떤 성공도 인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성교육은 초등학교 때만 제대로 받는다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나라의 동량을 양성하는 법.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졸업까지다. 춘천교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도내에 10년간은 근무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시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그의 애뜻함이 묻어있다.

“주위 사방이 경쟁의 틀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인심이 야박해지고 사회가 험악해지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동기생이나 동창생은 물론 가족까지 경쟁을 유도하는 교육시스템이 결국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의 목표가 바로 인성교육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이윤창출은 당연지사. 여기에 한술 더 떠 그는 이윤창출의 사회환원도 불문가지라는 그의 주장이다. “화선지 위에 네가 그리고 싶은 세상을 마음껏 그리게 해주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완성되지 못하면 다음세대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며 중단 없는 자선과 봉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의 행복나눔 바이러스가 회원사를 거쳐 전국에 퍼지길 기대해본다. 시와 그림 사진 등에 남다른 조예가 깊은 유 회장의 리더십이 궁금했다. 협회 권순영 전무는 “협회 일을 5년간 하면서 화를 내 신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한 포용의 리더”라는 말로 대신했다.



택시면세카드 롯데카드 유치(법인택시 한정)에 대한 충전사업자 인센티브 안내

한국LPG가스공업협회 부탄사업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제와 관련입니다.

동 제도는 '10.12.1부터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신규 사업자로 참여함에 따라 기존 신한카드사를 포함 3개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롯데카드는 자사의 카드발급 및 이용확대를 위해 충전소가 택시회사의 거래카드를 롯데카드로의 전환을 성사시킬 경우 거래카드 승인금액의 0.1%를 충전소 인센티브로 제공(6개월 한시적)기로 하고 우리협회에 동 내용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LPG충전사업자께서는 충전소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기 인센티브관련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센티브 조건

- 충전사업자가 택시사업자를 설득시켜 롯데카드 발급이 성사된 경우(재발급건은 제외)
충전사업자가 택시사업자의 롯데카드발급 결정을 받아 롯데카드사로 소개 ⇒ 카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인센티브 : 거래 승인금액의 0.1%를 충전소로 지급(첫 거래 발생일로부터 6개월 실적)
 - 적용대상 : '11.4월까지 충전소 소개로 발급된 롯데카드 (기간 연장은 추후 검토)

□ 롯데카드

구분	롯데카드
카드수수료	법인택시 1.1%
택시회사로 제공되는 포인트	택시 50대 미만 0.5% 택시 50~100대 0.6% 택시 100대 이상 0.7% ※ 충전소가 다수의 택시사업자 소개시 합계 대수적용

□ 법인택시 소개 접수처

- 롯데카드 : 정해익대리 02-2050-1376, 이형봉대리 02-2050-1301/FAX : 2050-1333~4
- ※세부상품안내 및 서류접수는 롯데카드가 담당하며, 발급결과는 충전사업자 및 협회로 통보 예정
- ※기타문의 : 협회 권영범 부탄사업팀장 02-3411-5111

(사)한국DME협회 2011년도 분과발표회 (' 11.3.10)자료

DME-LPG 혼합연료보급 시범사업 현황

한국LPG가스공업협회

1. 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 기간	10.12.1~11.11.30까지 2년
시범사업자	동방도시가스(강릉), 영진에너지(영광), 목포도시가스(목포), 천일가스(포항)
최종 목표	· 기존 LPG시설에 혼합연료 공급시 이상 유무(밸브, 조정기, 호스, 연소기 등 부품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 소비자 만족도 분석등 · 전국 확대시 보완방안 마련
혼합연료 공급방법	· 시범사업자당 가정용 50개소, 상업용 50개소 등 100개소에 혼합연료 공급 · DME-프로판 혼합연료 용기 별도 관리 (연료명/프로텍터 색깔 차별화)
시범사업자 형태	· 충전소 별도 부지에 10톤 혼합연료 저장탱크 설치후 용기에 충전해서 공급 ※ 포항 천일가스는 기존 15톤 저장탱크 이용 보급

2. 경과

- ' 09.11월 : 시범사업자 선정(4개소) 및 지경부 특례고시 제정-공포
- ' 10.1월~3월 : 혼합연료 충전-저장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실시
- ' 10.4월 : 혼합연료 충전-저장시설 시공사업자 선정 및 계약

- ' 10.4월~8월 : 혼합연료 시설설치 공사 및 인허가 절차 진행
- ' 10.6월,10월 : 해외 DME보급사례 조사 시행(중국(6월), 일본(10월))
- ' 10.8월 : 혼합연료 충전-가공시설 시공 완료
- ' 10.8월 : 혼합연료 소비자 보급 개시
- ' 10.9월 : 시범사업 발대식
- ' 10.10월 : 혼합연료 사용자 안전점검 계약 체결(한국가스안전공사)

3. 사업추진 내역

1. 혼합연료 충전-저장시설 설치

〈일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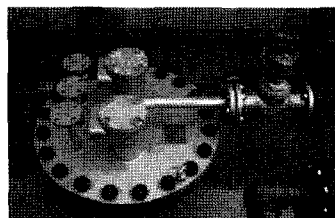
- ' 10.1월~3월 : 4개 시범사업소의 시공예가 산정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한영가스기공 수행)
- ' 10.4월 : 설계용역을 반영한 시공업체 선정 (MS ENG 선정)
- ' 10.4월~8월 : 혼합연료 충전 및 저장시설 설치 공사 진행 및 완료
 - ※ 영진에너지는 10월 중순 완료 : 설계변경에 따른 인허가 지연/잦은 폭우로 인한 공사차질
- ' 10.9월 : 시범사업 발대식 개최 등 본격 소비자 보급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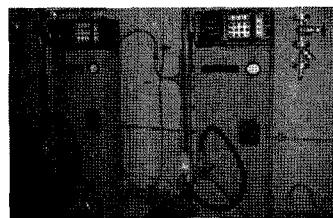
〈저장 탱크〉



〈혼합연료 보관실〉



〈지하저장탱크〉



〈충전 디스펜서〉

〈시험사업자별 시설 설치 내역〉

장비	천일가스	동방도시가스	목포도시가스	영진에너지
저장탱크	지하형 15TON	지상형 9.9 TON	지상형 9.9 TON	지상형 9.9 TON
압축기	소비전력:5.5kw (7.5HP) 370 ℓ /min	소비전력:5.5kw (7.5HP) 370 ℓ /min	소비전력:5.5kw (7.5HP) 370 ℓ /min	소비전력:5.5kw (7.5HP) 370 ℓ /min
논실펌프/배인 펌프	소비전력 :3.75kw (5HP) 120L / min	소비전력 :5.5kw (7.5HP) 지상형 200L / min	소비전력 :5.5kw (7.5HP) 지상형 200L / min	소비전력 :5.5kw (7.5HP) 지상형 200L / min
로딩암	50A / 25A 1SET	50A / 25A 1SET	50A / 25A 1SET	50A / 25A 1SET
충전기	800 kg/hr 27기 LOAD SELL부착형 충전기크기: 500W X 780L X 1800H	800 kg/hr 27기 LOAD SELL부착형 충전기크기: 500W X 780L X 1800H	800 kg/hr 27기 LOAD SELL부착형 충전기크기: 500W X 780L X 1800H	800 kg/hr 27기 LOAD SELL부착형 충전기크기: 500W X 780L X 1800H
살수펌프	5.5 Kw Q : 460L/min (MAX) H : 100M (MAX)	7.5 Kw Q : 460L/min (MAX) H : 100M (MAX) FRP 타입 (25,000L)	콘트롤밸브 50A 솔밸브 작동식	7.5 Kw Q : 460L/min (MAX) H : 100M (MAX) 지하매설형 살수 탱크 (25,000L)

2. 혼합연료 소비처 안전점검

〈개 요〉

- 목 적 : 혼합연료 시험 사용 소비처에 대한 안전관리 제고 및 향후 본격 보급을 대비한 기존 LPG 가스시설의 이상유무 점검을 위해 가스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용역추진
- 주요 점검 : 혼합연료 공급 관련 각종 부품 및 연소기등의 사용상 이상유무 등을 점검
- 점검 대상 : 혼합연료 시험사용 소비처 400개소 전수 조사

〈점검방법〉

- 점검 주체 : 해당 소비처 소재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에서 점검 실시하고 본사에서 취합하여 최종 보고서 제출

·점검 항목

1. 시설 안전관리 분야

- 1) 기화기 등 가스설비의 설치 및 작동상태
- 2)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 3) 배관 등의 가스누출 여부
- 4) 연소기의 기능 및 적정설치 여부 (가스보일러, 업무용 연소기 등)
- 5) 가스보일러 등의 폐가스 누출여부 측정 등

2. 운영관리 분야

- 1) 공급자 및 사용자의 가스시설 일상점검 체크/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2) 소비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이용)

〈점검 결과 조치〉

1. 경미한 개선사항 발생시

- 1) 호스 교체, 관 고정 등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개선조치
- 2) 일상점검 미 실시 시설은 해당 공급자와 소비자에게 계도

2. 중대 개선사항 발생시

- 1) 가스누출, 안전장치 작동불량, 연소기 이상 등 긴급사항은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신속조치
- 2) 해당 부품 및 연소기 회수 및 원인 분석

3. 종합보고서 제출

- 점검결과는 향후 혼합연료 안전관리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사항 및 개선방안을 보고서로 제출

〈점검 일정〉 : 동절기 및 하절기 구분 실시

1. 1차년도 연구 계획(2010년)

- 동절기 : 혼합연료 소비자 안전점검 실시

(2월 중순 ~ 3월 초 지부별 실시, 3월 중순에 1차 보고서 제출)

2. 2차년도 연구 계획(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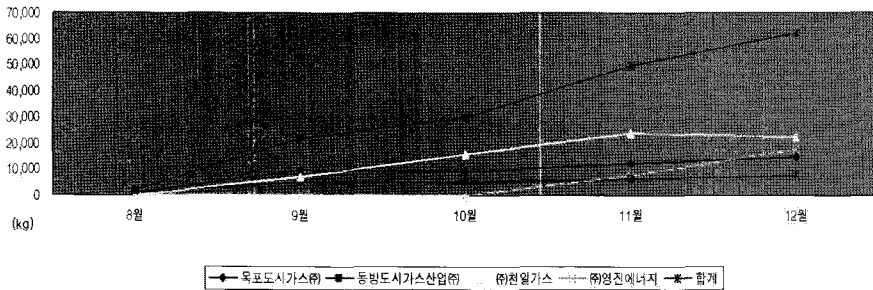
- 하절기 : 혼합연료 소비자 안전점검 실시

4. 사업진행실적 현황

1. 공급실적

〈DME 혼합연료 공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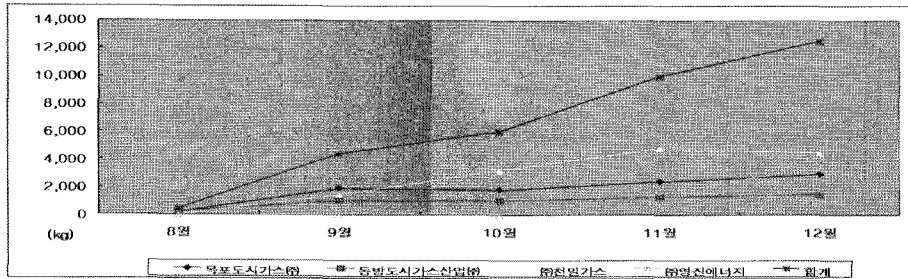
- '10년 8월부터 시작된 DME 혼합연료의 공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
 - 9월(909.2%)은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 시점이므로 급격히 증가
 - 10월(37.3%), 11월(65.8%), 12월(25.3%) 3개월간 꾸준히 증가
- 2010년 4/4분기 월평균 42.8%(9월 제외)의 증가율



시범사업자명	3/4분기		4/4분기			합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포도시가스(주)	950 kg	9,580 kg	9,075 kg	12,118 kg	14,768 kg	46,491 kg
동방도시가스산업(주)	1,220 kg	5,110 kg	5,090 kg	6,330 kg	7,500 kg	25,250 kg
(주)천일가스	-	7,210 kg	15,910 kg	23,960 kg	22,450 kg	69,530 kg
(주)영진에너지	-	-	-	7,450 kg	17,760 kg	25,210 kg
합계	2,170 kg	21,900 kg	30,075 kg	49,858 kg	62,478 kg	166,481 kg
전월대비 증가분	-	19,730 kg	8,175 kg	19,783 kg	12,620 kg	-
전월대비 증가율	-	909.20%	37.30%	65.80%	25.30%	-

〈DME 공급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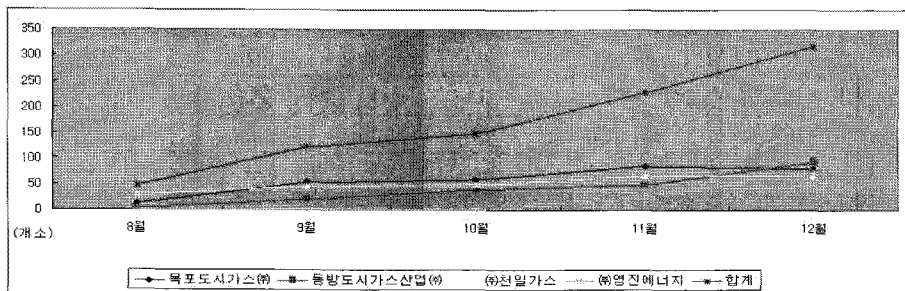
- 혼합연료는 DME 20%, LPG 80%의 비율로 혼합하기 때문에 혼합연료와 같은 추세 보임



시범사업자명	3/4분기		4/4분기			합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포도시가스(주)	190 kg	1,916 kg	1,815 kg	2,424 kg	2,954 kg	9,299 kg
동방도시가스산업(주)	244 kg	1,022 kg	1,018 kg	1,266 kg	1,500 kg	5,050 kg
(주)천일가스	-	1,442 kg	3,182 kg	4,792 kg	4,490 kg	13,906 kg
(주)영진에너지	-	-	-	1,490 kg	3,552 kg	5,042 kg
합계	434 kg	4,380 kg	6,015 kg	9,972 kg	12,496 kg	33,297 kg
전월대비 증가분	-	3,946 kg	1,635 kg	3,957 kg	2,524 kg	-
전월대비 증가율	-	909.20%	37.30%	65.80%	25.30%	-

2. 시범사업 공급실적 (공급처 수)

- 시범사업자당 가정용 50개소, 업소용 50개소 총 400개소 공급처 확보가 목표
- 2010년 12월말 기준, 총 316개소 공급, 순조롭게 진행
 - 2010년 8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12월말에 목표치의 79.0% 달성
 - 4/4분기 평균 38.3%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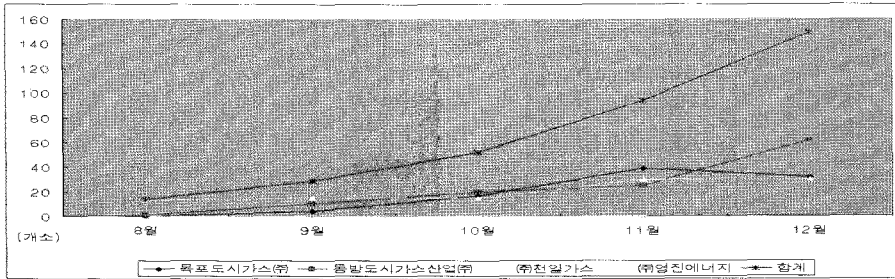


(단위:개소)

시범사업자명	사업계획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정용	업소용	가정용	업소용	가정용	업소용	가정용	업소용	가정용	업소용	가정용	업소용
목포도시가스(주)	50	50	-	13	4	50	17	42	39	46	32	47
동방도시가스산업(주)	50	50	1	3	10	11	20	19	25	25	61	32
(주)천일가스	50	50	13	18	15	31	15	35	30	37	30	37
(주)영진에너지	50	50	-	-	-	-	-	-	-	27	25	52
합계	200	200	14	34	29	92	52	96	94	135	148	168
월간 총합	400		48		121		148		229		316	
달성률	-		12,00%		30,30%		37,00%		57,30%		79,00%	
전월대비 증가율	-		-		152,10%		22,30%		54,70%		38,00%	

〈가정용 공급실적〉

- 시범사업자당 가정용 50개소, 총 200개소 공급처 확보가 목표
- 2010년 12월말 기준, 총 148개소 공급
 - 2010년 8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12월말에 목표치의 74.0% 달성
 - 4/4분기 평균 72.5%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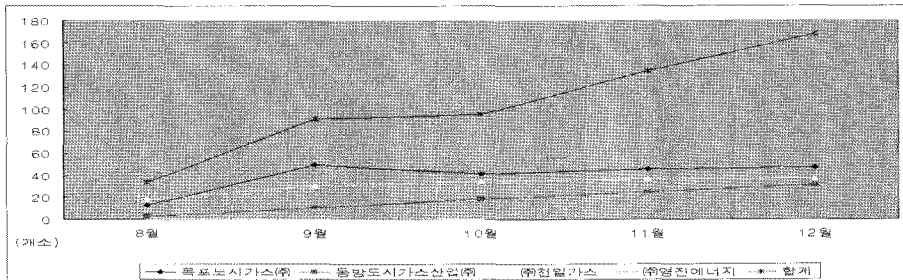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시범사업자명	사업계획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포도시가스(주)	50	-	4	17	39	32
동방도시가스산업(주)	50	1	10	20	25	61
(주)천일가스	50	13	15	15	30	30
(주)영진에너지	50	-	-	-	-	25
합계	200	14	29	52	94	148
달성률	-	7,00%	14,50%	26,00%	47,00%	74,00%
전월대비 증가율	-	-	107,10%	79,30%	80,80%	57,50%

〈업소용 공급실적〉

- 시범사업자당 업소용 50개소, 총 200개소 공급처 확보가 목표
- 2010년 12월말 기준, 총 168개소 공급
 - 2010년 8월부터 점차 증가하여 12월말에 목표치의 84.0% 달성
 - 4/4분기 평균 69.4%의 증가율



(단위 : 개소)

시범사업자명	사업계획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목포도시가스(주)	50	13	50	42	46	47
동방도시가스산업(주)	50	3	11	19	25	32
(주)천일가스	50	18	31	35	37	37
(주)영진에너지	50	-	-	-	27	52
합계	200	34	92	96	135	168
달성률	-	17.00%	46.00%	48.00%	67.50%	84.00%
전월대비 증가율	-	-	170.60%	4.40%	40.60%	24.40%

3. 소비자 사용실태 조사내용

- 가정·취사용
 - LPG 사용시와 차이점을 느끼지 못함
 - 가격이 경제적임
 - 프로판 대비 그을음이 적음
- 업소용
 - LPG로 다시 전환하는 경우 발생
 - 화력이 약하다는 문제제기

- 열량이 낮아 LPG보다 더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는 평가
- 업소에서는 LPG 정도의 강한 화력에 익숙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 현재까지의 평가로는 가정용 상용화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업소용의 경우 낮은 열량 및 화력에 대해 사전 충분한 홍보 및 사용권장 필요

4. 소비처별 만족도

○ LPG 대비 소비자 만족도 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진행

100~90	매우 만족	89~80	대체로 만족	79~60	개선된 느낌
59~50	변화 못 느낌	49~40	조금 미흡	39 이하	불만족

○ 전체 소비자의 88.9%가 만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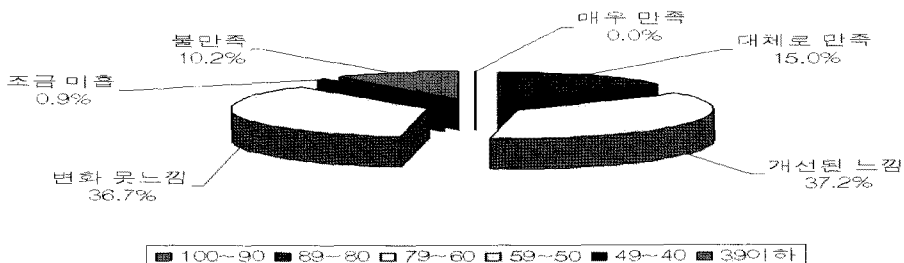
- LPG 사용시와 특별히 다른 점을 인지하고 있지 않다면 만족한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변화 못 느낌(59~50)' 이상의 만족도를 느낀 소비자가 전체의 88.9%
 - '대체로 만족(89~80)' 을 선택한 소비자가 15.0%
 - '개선된 느낌(79~60)' 을 선택한 소비자가 37.2%
 - '변화 못 느낌(59~50)' 을 선택한 소비자가 36.7%

○ 향후 만족도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자의 성실한 조사기법이 요구됨

- (주)영진에너지의 경우 만족도를 85로 일관되게 작성하여 만족도 분석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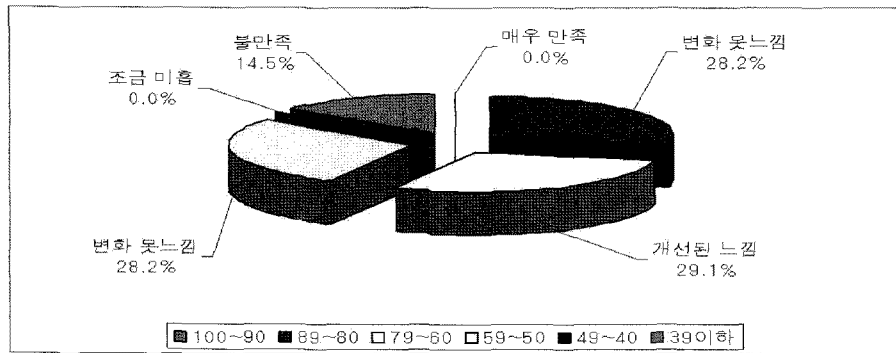
(전체 소비자 만족도 분포도)

만족도	100~90 (매우 만족)	89~80 (대체로 만족)	79~60 (개선된 느낌)	59~50 (변화 못 느낌)	49~40 (조금 미흡)	39이하 (불만족)
소비자수	-	34	84	83	2	23
비율(%)	0.00%	15.00%	37.20%	36.70%	0.90%	10.20%
계	88.90%				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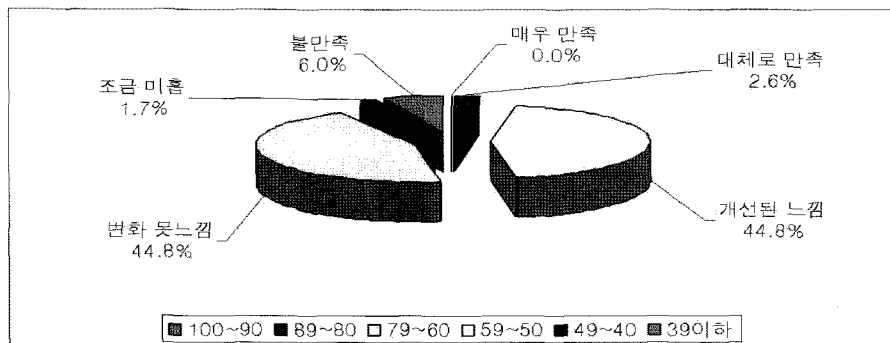
〈가정용 소비자 만족도 분포도〉

만족도	100~90 (매우 만족)	89~80 (대체로 만족)	79~60 (개선된 느낌)	59~50 (변화 못느낌)	49~40 (조금 미흡)	39이하 (불만족)
소비자수	-	31	32	31	-	16
비율(%)	0.00%	28.20%	29.10%	28.20%	0.00%	14.50%
계	85.5%				14.5%	



〈업소용 소비자 만족도 분포도〉

만족도	100~90 (매우 만족)	89~80 (대체로 만족)	79~60 (개선된 느낌)	59~50 (변화 못느낌)	49~40 (조금 미흡)	39이하 (불만족)
소비자수	-	3	52	52	2	7
비율(%)	0.00%	2.60%	44.80%	44.80%	1.70%	6.00%
계	92.2%				7.8%	



5. 향후 추진방향

〈시범사업의 안정적 진행〉

- 공급현황 : 4/4분기 총 166,481kg 공급
 - DME 총 33,297kg 공급
- 공급처 수는 총 316개소로 목표의 79.0% 달성
 - 가정용 공급처 수는 148개소로 74.0%
 - 영업용 공급처 수는 168개소로 84.0%
- 소비자의 88.9%가 만족
 - 가정용 소비자의 85.5%
 - 업소용 소비자의 92.2%
- 가격, 열량 등에 대해 세분화하여 매 분기마다 설문조사 실시 계획

〈추후 상용화 대비 안전성 확인·검증〉

-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진행중인 혼합연료 소비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증
 - 용기, 밸브, 호스, 조정기 등